

국제개발협력

이슈 ISSUE

ISSUE

BRIEF

브리프



현지 주도 개발

VOL. 17 | 2025. 7

KOICA YP 노유리

전북국제협력진흥원(JBCIA)는 KOICA 영프로페셔널(YP)을 중심으로, 최근의 국내외 개발협력 관련 동향과 이슈를 분석하고 소개하고자 '국제개발협력 이슈브리프'를 발간합니다.

본 내용은 작성자의 견해이며,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Jeonbuk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목 차

들어가며

1. 현지 주도 개발의 배경과 개념적 이해
2. 현지 주도 개발의 실제와 과제
3. 효과적인 현지 주도 개발을 위한 협력 전략

마치며

참고문헌

들어가며

현지 주도 개발의 중요성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현지 주도 개발(Locally Led Development, LLD)에 대한 논의가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¹⁾ 현지 주도 개발은 개발 대상국, 즉 협력국의 자율성과 주도권(Ownership)을 강조하며, 현지 행위자(Local actors)가 발전과정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도적 역할을 맡아, 이들 스스로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해 개발협력을 기획하고 이끌어야 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담론은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로 공여국들의 실무 정책이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반영되는 과정은 충분치 못했다. 그러나 2021년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가 'Localization 비전'을 천명하고, 2022년 효과적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다수의 DAC 공여국이 '현지 주도 개발 지지 공여국 성명(Donor Statement on Supporting Locally Led Development)'에 공식 서명하면서, 현지 주도 개발은 DAC 논의의 중심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2023~2024년에는 '현지 주도 개발 동료학습(Peer learning on LLD)'과 같은 구체적 실행 논의가 전개되며 현지 주도 개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²⁾

1) Kim Yukyum. An Analysis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 Discussions on Locally Led Development (LLD)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J Int Dev Coop 2024;19(2):105-131. <https://doi.org/10.34225/jidc.2024.19.2.105>

2) Kim Yukyum. An Analysis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 Discussions on Locally Led Development (LLD)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J Int Dev Coop 2024;19(2):105-131. <https://doi.org/10.34225/jidc.2024.19.2.105>

현지 주도 개발의 개념

현지 주도 개발의 이론적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규범적 당위성에 기반한 접근과 도구적 그리고 실용적 측면에 기반한 접근이다. 먼저, 규범적 당위성에 기반한 접근이란, 협력국 주민들이 발전의 주체로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참여하는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³⁾(Chambers, 1983 as cited at Kim Yukyum, 2024.)과 ‘개발의 탈식민화(Decolonization of development)⁴⁾(Mawdsley, 2012 as cited at Kim Yukyum, 2024.) 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 기획 주도권과 권력관계의 균등화, 실질적 참여의 제도화, 수원국의 자율성과 역량강화를 지향한다.

다음은 도구적 그리고 실용적 측면(Instrumental, Practical Justification)으로, 현지 주도 개발은 원조 및 개발 효율성 제고의 맥락에서 주목받는다. 대표적으로 2005년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에서 제시한 ‘주인의식(Ownership)’, ‘정렬(Alignment)’, ‘조화(Harmonization)’, ‘성과관리(Managing for Results)’,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등 5대 원칙은 실제 개발성과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현지 시스템과 리더십 존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⁵⁾ 또한, 최근 일부 연구⁶⁾는 현지 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인건비와 관리비 절감 등 평균 32% 수준의 비용 효율성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일부 비판적 시각에서는 효율성 중심의 논거가 자칫 외부의 식민주의적 시각 또는 저렴한 현지인력 착취로 오해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⁷⁾.

3) Kim Yukyum. An Analysis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 Discussions on Locally Led Development (LLD)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J Int Dev Coop* 2024;19(2):105-131. <https://doi.org/10.34225/jidc.2024.19.2.105> ; Cornwall, A. (2002). Making spaces, changing places: Situating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Working Paper Series. 170). Brighton: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IDS).

4) Escobar, A. (1995).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Yukyum. An Analysis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 Discussions on Locally Led Development (LLD)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J Int Dev Coop* 2024;19(2):105-131. <https://doi.org/10.34225/jidc.2024.19.2.105>

5) OECD.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Ownership, Harmonisation, Alignment, Results and Mutual Accountability*. OECD Publishing.

6) The Share Trust & Warande Advisory Centre. (2022). *Passing the buck: The economics of localising international assistance*.

7) Ndlovu-Gatsheni, S. (2020). *Decolonization, development and knowledge in Africa: Turning over a new leaf*. London: Routledge.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이처럼 현지 주도 개발은 단순한 개발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개발 협력의 근본적 원칙과 실천 방식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이자, 기존의 공여국 중심 구조를 넘어 수원국의 자율성과 리더십을 제고하려는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규범적 그리고 도구적 접근 모두에서 강조되듯, 현지 주도 개발은 단순히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넘어, 개발의 주체로서 현지 행위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개발협력이 성과 중심의 단기적 개입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지 맥락에 기반한 참여,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 사회가 추구하는 개발 효과성, 투명성, 책무성 강화와도 맞닿아 있으며, 최근 들어 현지 주도 개발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는 배경이 된다.

현지 주도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공여국 중심적 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수원국과 현지 행위자의 자율성과 리더십을 강화함으로써 개발 협력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현지 주도 개발은 개발 협력의 규범적 그리고 도구적 차원 모두에서 의미가 깊다. 이는 단순히 비용 효율성이나 외부자에 의한 성공 기반의 확산 논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주체를 현지 행위자로 삼아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문제의 진단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을 현지에서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서 진정한 본질적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근거에는 기존 개발 협력 모델의 실패와 한계에 대한 자기성찰이 자리한다. 과거의 상향식(Top-down) 원조 구조 아래에서 개발사업은 종종 현지의 실질적 필요와 괴리되었고, 의존성 심화, 정책의 비구조적 이행 등 여러 문제점이 반복해서 드러났다. 그러므로 개발의 '소유권'과 자기결정권을 현지로 온전히 이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국제사회에서 대두되었고, 이는 개발 패러다임의 근본적 대전환을 촉진했다.

현지 주도 개발은 내재적 성장(Endogenous Development)과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물론, 사회적 자본의 강화하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현지 행위자가 고유한 맥락에서 경험적 지식과 자산을 바탕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을 주도할 때 비로소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변화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책 설계, 집행, 평가 전 과정에 현지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개입하여 주도권을 갖는 것을 전제한다. 즉, 개발사업의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 권한을 명확히 해야 진정한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현지 주도 개발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발 파트너들은 진정하게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강화와 제도 마련, 그리고 투명성과 상호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개발 효과성, 투명성, 책무성이라는 국제사회의 주요 원칙과도

맞닿아 있으며, OECD에서 강조하는 ‘참여적 접근’과 ‘프로그램 전 주기에 걸친 현지 주체의 적극적 개입’의 맥을 같이 한다. 또, 2000년대 이후 개발 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의제와 2030 SDGs 모두 ‘사람 중심 개발’, ‘참여적 거버넌스’, ‘지역 역량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지 주도 개발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와 도전과제가 상존한다. 이는 현지 정부 또는 기관의 역량 부족, 제도와 행정의 경직성, 경우에 따라 부패라는 도전, 또한 아직까지 정보와 자원의 결정권이 공여국에 집중되어 생기는 현지 행위자의 실질적 한계 등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기존 기부자 중심의 관례와 정책 프레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현지 행위자의 권한 부여가 선언적 차원에 머무를 위험도 크다. 때문에 현지 주도 개발은 단순한 방식이나 전략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외부 주도적 단기 개입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 패러다임 전환은 궁극적으로 전통적 기부자-수혜자 관계를 넘어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협력적 파트너십’의 구축을 지향한다. 이는 ‘누가 개발을 이끄는가?’라는 기본적 질문을 ‘어떻게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보다 확장된 관점으로 변화시킨다. 결국 현지 주도 개발은 개발협력의 수혜자/공여자 구분을 허물고, 글로벌 공동체의 책임과 연대를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방법론의 변화가 아니라 개발철학과 가치체계의 근본적인 혁신, 즉 진정한 ‘사회적 변화’의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며 포용, 공정,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본질적 패러다임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국제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1. 현지 주도 개발의 배경과 개념적 이해 'Local Ownership'의 정의와 국제적 논의 흐름

앞서 언급했듯이 현지 주도 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외부 주도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로서 현지 주민과 지역 사회가 중심에 서야 한다는 철학적 전환을 반영한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사업 실행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지 주도 개발은 단순한 실행 전략이 아닌, 국제 개발협력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중요한 흐름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외부 지원이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혜국의 의존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개발 과정에서 현지의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접근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수혜국이 스스로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협력의 중심축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제도적 논의로 이어졌다.

'Local Ownership(현지 주도권)'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1996년 OECD DAC가 이를 개발협력의 중심 원칙으로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⁸⁾ 특히 DAC는 개발 원조가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수혜국이 그 과정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현지 주도권을 존중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하였다.

이 개념은 2001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발언에서도 중요한 전기(轉機)를 맞는다. 그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개발은 외부의 개입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만이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하며, 유엔의 역할은 그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평화 구축과 개발 협력에서 현지의 역량과 주체성을 중심에 두는 접근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입장으로 평가된다(Kievelitz, Kruk, & Freiters, 2003, as cited in Wong, n.d.).⁹⁾

현지 주도권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현지 주도권을 가진 평화 구축 활동은 외부 행위자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부합하는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Van Brabant, 2010, as cited in Wong, n.d.).¹⁰⁾ 둘째, 윤리적, 정치적 정당성의

8) <https://www.oecd.org/en/topics/development-co-operation> (2025. 08. 04, 검색)

9) WONG. P. (n.d.). 'Local Ownership' in Peacebuilding - a Premature Rhetoric?

10) WONG. P. (n.d.). 'Local Ownership' in Peacebuilding - a Premature Rhetoric?

측면에서도, 현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개발 방식은 외부 개입에 대한 주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¹¹⁾ 이는 특히 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개혁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지 주도권' 개념은 그 정의와 적용에 있어 여전히 많은 모호성을 안고 있다. '현지'란 누구를 의미하는가? 국가 정부인가, 지방 행정체인가, 시민사회나 선주민 공동체인가에 따라 적용 범위와 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현지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우선순위를 지니고 있음에도, 기존의 논의들은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¹²⁾

예를 들자면, 실패한 국가나 분쟁 후 상황에서 현지 주도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은 지역 정치 엘리트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항상 공공선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분쟁 상황에서 축적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숨겨진 의제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¹³⁾ 이는 개발 협력의 정당성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시에라리온의 경우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화 재건 과정에서 지역 엘리트들은 개혁 설계에 참여했지만, 시민 사회 단체나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의 협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¹⁴⁾ 이는 지역 내 신뢰 부족과 정책 실행의 정당성 결여로 이어졌으며,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⁵⁾

이처럼 현지 주도 개발이 단순한 실행 방식의 선택을 넘어 개발의 방향성과 철학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는 보다 깊이 있는 개념적 논의를 통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지 주도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대표성을 지닌 현지 파트너의 식별과 이들의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참여 구조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11) Donais, T., 2009, "Empowerment or Imposition? Dilemmas of Local Ownership in PostConflict Peacebuilding Processes", *Peace & Change* 34(1), 3-26

12) Diamond, L., (1999), "Multi-Track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In *People Building Peace. 35 inspiring stories from around the world*, edited by State of the World Forum, 77-86, The Hague, Netherlands: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 ; Peck, C., (1999), "A More Strategic Partnership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Conflict", In *Searching for Peace in Africa. An overview of conflict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ivities*, edited by Monique Mekenkamp, Paul van Tongeren and Hans van de Veen, 39-45. Dublin, Ireland: International Books. ; Van Tongeren, P., (1998), "Exploring the Local Capacity for Peace - The Role of NGOs." I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Violent Conflicts: An International Directory*, 21-26, Utrecht, Netherlands : European Platform for Conflict Prevention and Transformation ; Van Tongeren, P., (1999), "Some Reflections on Peace-Building." In *People Building Peace People Building Peace*, 124-133, The Hague, Netherlands: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

13) Donais, T., (2009), "Empowerment or Imposition? Dilemmas of Local Ownership in PostConflict Peacebuilding Processes", *Peace & Change* 34(1), 3-26

14) Mateos, O. (2011), "Local Ownership and Liberal Peacebuilding: From Rhetoric to Practice? Sierra Leone as a Case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Conference on African Studies, Uppsala, Sweden, June 15-18.

15) Van Brabant, K. (2010), "Peacebuilding How? Broad Local Ownership." Geneva, Switzerland: International Peace Alliance

파리선언(2005) 이후의 원칙과 실천 동향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현지 주도권의 개념을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원칙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그 대표적인 이정표가 바로 2005년의 파리선언이다. 파리선언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국의 주도권(Ownership), 조화(Harmonization), 정렬(Alignment), 성과 중심 관리(Managing for Results), 상호 책임(Mutual Accountability)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에 '주도권'은 현지 주도 개발의 근간으로 강조되었다, 이는 단순히 원조 수령 국가가 형식적으로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립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엔 개발계획(UNDP)과 같은 다자기구들도 각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실천을 도입하고 조정하게 되었다.

UNDP는 유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매우 포괄적이고 심화된 소유권 개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실행, 모니터링, 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각국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¹⁶⁾ 구체적으로는 유엔 개발 원조 체계(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UNDAF), 국가 프로그램 문서, 국가 프로그램 행동 계획, 개별 프로젝트 문서, 연간 작업 계획 등 각종 문서와 프로그래밍 도구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개발 계획의 주기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단위의 주도로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이사회를 개최하여 모든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요 수혜자의 실질적 참여와 권한을 보장한다. 이는 파리 선언의 '주도성'과 '정렬'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실천 과정에는 여러 한계도 존재한다. 형식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전략을 주도했는지, 핵심 이해관계자인 정부가 얼마나 의미 있는 리더십을 행사했는지, 수혜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UNDP의 공식 프로그램 문서 지표(Programme Document의 운영전략지표 등)는 '정부의 참여' 그 자체로는 초점을 두지만, 주도권의 내용과 깊이, 즉 실질적 리더십의 분포까지는 포착하지 못한다.¹⁷⁾ 이로 인해 특정 프로그램이 국가의 진정한 리더십 강화에 기여했는지, 국제협력구조 내에서 파리선언의 원칙이 얼마만큼 구현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정량 및 정성적 어려움이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국제사회와 UNDP는 최근 더욱 정교한 실천 방안과 평가방법을 모색하고 있다.¹⁸⁾ 수원국이 정책 설계와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갖도록 인적, 제도적 역량 강화를 확대하고, 프로젝트 이사회 등 협력 및 조정 구조를

16) UNDP. (2015)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17) UNDP. (2015)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18) UNDP. (2015)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실제로 국가 주도 하에 운영하며, 주요 의사결정에서 수혜자와 핵심 파트너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 한다. 또한, 단순 설문이나 형식적 평가지표에서 벗어나, 정성적 사례연구나 파트너십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실질적인 개발협력의 주도성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자원 동원과 민관 협력, 사회 각 계층의 참여 등 주도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천 동향이 변화하고 있다.

현지 주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

현지 주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은 주로 외부 지원 기관(공여국)의 우선순위와 논리에 따라 개발사업이 설계되고 실행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지역 사회의 복잡한 맥락과 다양한 필요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현지 주민들의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현지 주도 (local leadership 혹은 locally-led development) 개발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지원의 패러다임을 본질적으로 전환하는 시도이다.

현지 주도의 필요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¹⁹⁾ 먼저, 현지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지역적 필요의 반영이다. 현지 사회 구성원과 조직은 자신의 지역적 맥락과 변화하는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한다. 그 결과, 이들의 리더십 하에 설계된 개발사업은 실제 수요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용성을 높여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킨다. 이는 더 이상 공여국의 '대형 유조선'과 같은 느리고 일방적인 운영방식이 아닌, 변화와 요구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중심의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음은, 책임성과 효과성의 강화이다. 지난 75년 동안 개발사업이 공여국의 '책임'에만 지나치게 의존했다면, 현지 주도 모델에서는 지역사회의 책임의식이 커지고 외부 지원 체계의 일방성에서 벗어나 '함께 만들어가는 개발'이 가능해진다. 현지 주도는 단지 특정 사업의 집행만이 아니라, 자원 분배, 우선순위 결정, 실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을 증진시킨다.

마지막으로, 현지 역량 강화와 시스템 혁신이다. 현지 개발 파트너들은 종종 데이터 수집, 분석, 관리 등에서 한계를 겪는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백본(Backbone)기관은 데이터 인프라 및 전문 지식을 지원하고, 물리적 인프라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본기관과 현지 파트너가 동반자 관계로 협력할 때, 현지의 데이터 활용 능력이 증진되고, 관련 교육, 경험, 기반시설의 확대 등 궁극적으로 정체 개발생태계의 역량이 향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지 주도성'은 단지 실행 장면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역량 강화 지원 대응 네트워크(Network for Empowered Aid Response, NEAR)가 정의하듯, 이는 지역화와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의 설계, 자금조달, 전달 모든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²⁰⁾ 현지 대응 시스템이 위기 전, 위기 중, 위기 후 환경에서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19) Brookings. 「Development interdependence: Locally driven, globally informed」. <https://www.brookings.edu/articles/development-interdependence-locally-driven-globally-informed/> (2025 07. 04. 검색)

20) Brookings. 「Development interdependence: Locally driven, globally informed」. <https://www.brookings.edu/articles/development-interdependence-locally-driven-globally-informed/>

보유해야만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현지 주체가 복잡한 현지 맥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사업 추진과 설계, 전달의 중심에 선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지원체계 내 기득권과 권력구조를 바꾸는 '권한 이전'의 의미도 가진다.

2. 현지 주도 개발의 실제와 과제 국가 및 기관의 현지 주도 사례 분석

그러나, 현지 주도성의 중요성과 그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실제 맥락에 적용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국가와 기관이 어떻게 현지 주도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은 이론적 개념을 현실의 정책과 사업 환경 속에서 검증할 뿐 아닐, 각기 다른 정치, 경제, 문화적 조건에서 어떤 전략이 성공하거나 한계를 드러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현지 주도 개발이 직면한 실제적 과제와 잠재적 해법을 보다 입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 폴란드의 Solidarity Fund 사례

폴란드의 연대기금(Solidarity Fund)은 현지 주도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협력에서 현지 행위자의 주체성과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방식의 성공적인 실천을 보여준다. 이 기금은 2012년 몰도바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현지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왔다. 주목할 점은 각 사무소가 폴란드인의 파견이 아닌, 해당 국가 국민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지 주도권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전략이자, 현지 네트워크와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몰도바에서 연대기금은 유럽연합(EU)의 LEADER 접근법, 즉, 농촌개발의 설계,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 현지 네트워크와 주민 파트너십을 핵심으로 하는 방식을 도입, 확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현지 농촌개발 에이전시 및 지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업, 개발, 환경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지침 개발에 기여했다. 2020년에 이르러 몰도바 내 13개 도시가 연대기금

지원 하에 '국가 도시 활성화 네트워크'를 결성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모델 확산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상호 협력을 추진하였다.

연대기금의 활동은 현지 파트너 역량 강화로 이어졌다. 몰도바의 LEADER 네트워크는 다양한 공여자 및 정부 재원을 연계하여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또한 도시재생 영역에서는 현지 행정과 시민사회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 재생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과 성공모델은 점차 국가-level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현지 행위자와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는 폴란드의 전환국 경험이 정책 개혁, 사회정책, 직업교육, 시민보호 등 다양한 부문에 맞게 적용되었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버넌스 혁신이 이뤄졌다. 조지아에서는 현지 기반의 '지역자치 아카데미'가 설립되어, 지역 의사결정 역량 향상과 부문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실질적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2) 아이슬란드의 지방정부 중심 개발²¹⁾

아이슬란드의 지방정부 중심 개발협력 경험은 현지 주도 개발(Local Ownership)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분권화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아이슬란드는 비교적 소규모의 개발협력국이지만, 그만큼 제한된 재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개발 효과성을 극대화 하는 원칙에 역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접근의 핵심은 '지역 기반의 프로그램 중심 지원'과 지역 당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있다.

먼저, 아이슬란드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서 '지방정부 시스템'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사업의 설계와 실행에서는 항상 파트너 국가의 하위 정부, 즉 지역 및 지방 당국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빈곤 감축, 불평등 해소, 그리고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개선과 같은 본질적인 개발 목표의 달성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당국이 주요 실행 주체로서 프로그램 관리를 담당하며, 자체적인 계획과 예산에 기반한 사업 추진,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수행 방안을 직접 설정한다.

또한, 아이슬란드는 프로그램 기반 접근(Programme-based approach)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초기에 주로 개별적 프로젝트 지원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했다. 사업의 범위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프로젝트의 집적을 넘어서 국가나 지역 차원의 개발계획과의 연동성을 강화하며, 이 때 지역 주체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극대화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하위국가(지방) 정부에 정치적 권한과 재정적 자원을 이양하는 것은 시렛 현지 주도의 실행력, 책임성, 그리고 혁신 역량을 키우는 분수령이 되었다.

21) OECD. (2021). Partnering for Local Ownership Programme-based Approaches at the District Level.

실제 사례에서 아이슬란드는 지역 당국의 결과 모니터링 및 재정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는 단기적인 사업 실행을 넘어, 파트너 국가 내 지방정부가 지속 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지역 개발 계획과 실제 운영 전략은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의 과정에서 도출되고, 주민의 의견이 예산과 실천 전략에 반영되었다.

KOICA의

(3) 과테말라 재정착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

KOICA는 과테말라 내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났다가 귀환한 재정착 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현지 주도적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내전(1960~1996)으로 사회 및 경제 기반이 파괴된 상황에서 귀환한 난민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사회적 고립과 경제활동 기회 부족 문제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대상은 4개 마을, 총 456가구, 2,477명이었으며, 각 마을에는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 훈련 및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개발 접근이 적용되었다. 특히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주민 스스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발적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교육시설과 커뮤니티 센터를 건설하고, 마을 조직이 주도하는 소득창출 활동을 지원하였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가 이뤄졌으며, 마을별 커뮤니티 조직이 계획과 실행단계에서 일정한 주도권을 발휘하였다. 이로 인해 주인의식과 리더십이 형성되었고, 인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마을별로 참여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주민 주도의 활동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에는 기술과 경영 역량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지 역량 강화의 성과와 한계

정리하자면, 현지 주도 개발의 핵심인 현지 역량 강화는 다양한 국가 사례를 통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폴란드의 연대기금(Solidatary Fund)은 몰도바,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현지 인력을 중심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며, 국가별 상황에 맞춘 네트워크 구축과 제도 설계, 정책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주체들의 정책 참여 역량을 제고하였다. 특히 몰도바의 도시재생 지침 마련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사례는 제도적 역량 강화의 대표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아이슬란드의 지방정부 중심 개발은 지역 정부에 예산과 권한을 이양하며 현지 계획과 커뮤니티 협의 기반의 실행 체계를 공고히 하였고, 파트너 국가의 서비스 전달 개선과 지역 빈곤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KOICA의 과테말라 재정착 공동체 프로젝트 역시 주민 주도의 인프라 개선과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마을별 참여 편차와 여성의 제한적 참여는 주민 참여의 포괄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처럼 현지 역량 강화는 제도적 정착과 자율적 실행력 측면에서 성과를 보이나, 권력관계, 성별, 사회문화적 다양성의 반영 정도에 따라 그 실효성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수원국 내 다양성, 권력 구조, 시민 사회 참여의 과제

현지 주도 개발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들의 삶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의미 있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대화를 넘어, 실제 권한과 자원이 분산되고, 참여가 정책, 투자, 실행에 주체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수천 명의 지역 지도자들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팽정관에게 전달한 메시지도 바로 이 점을 강조했다. 다양한 현지 주체들이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 정책, 해결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현지화(Localization)와 '현지 주도 개발'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논의 과정에서 현지 주체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거나 부차적인 위치에 머무르는 경우는 여전히 빈번하다. 2024년, 주로 남반구(Global South)로 불리는 다수 세계의 1,200명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국제 기금 제공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규탄했고, 현지 단체와 네트워크가 더욱 효과적으로 포함되기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 제언을 내놓았다.

먼저, 현지 주도 참여와 대화를 위한 공간과 자원에 투자해야 한다. 다양한 주체와 자금 제공자가 같은 '공동 개발 구역'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협력함으로써, 각 맥락에서 가장 타당한 핵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합의한 방향이 정책, 투자, 메커니즘으로 연결된다.

둘째, 정책과 공약을 일관되게 조율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내건 공약과 실제 정책 사이에 불협화음이 존재한다. 팔레스타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립적 발전은 뚜렷하지 않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단기적 인도 대응뿐 아니라, 전후 재건과 개발에 있어 활발하고 다양한 시민사회에 대한 장기적이고 신뢰 기반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휴전을 요구하고, 인권 침해를 기록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부당한 간섭 없이 재건 과정에 지역 행위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양질의 기금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영양가 있고 유연하며, 비지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금은 지역 주체들이 변화하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직접 지원 확대, 현지 주도 기금 모델 투자, 핵심 운영비 지원, 보조금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이는 기부자, 국제 NGO, 현지 주체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네 번째, 해당 약속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기부자가 설정한 지표로만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주민들의 실제 경험과 변화를 기준으로

발전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보편적으로 합의된 용어, 기부자별 목표, 기준 데이터, 정책, 진행 상황, 향후 방향에 관한 공개 정보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현지 주도 개발을 시민적 그리고 민주적 자유 확대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활동에 필요한 자원 접근권이 보장될 때, 시민사회는 더욱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주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CIVICUS Monitor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시민 공간이 '폐쇄된' 국가에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 심화가 뚜렷하다. 그러므로 전략과 지원은 국가별 맥락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지리적 여건, 분쟁, 구조적 차별의 영향을 받는 집단이 발신하는 '조기경보'를 기민하게 수용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역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강화하여 새롭게 다가올 위기와 기회를 미리 체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현지 주도 개발이 성공하려면 형식적 참여를 넘어, 권력과 자원의 실질적 이동, 포용성과 다양성의 보장, 정책, 재정, 책임 구조의 일관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원조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개발 협력 패러다임을 '선의의 기부'에서 '연대와 권한 공유'로 옮기는 근본적인 전환이다.

3. 효과적인 현지 주도 개발을 위한 협력 전략 수요 기반 접근과 맞춤형 지원 설계²²⁾

효과적인 현지 주도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조 자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수원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해당 국가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설계, 배분하는 수요 기반 접근과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개발 협력에서 널리 논의되는 다섯 가지 핵심 원칙 - 수원국 주도성, 포용적 파트너십, 현지 행위자 참여, 원조 비구속화,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성 - 이 유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림 1> 개발을 위한 수요 기반 접근 방식의 원칙



출처: CSIS. (2019). Demand-Driven Approach to Development

먼저, 수원국 주도성(Country Ownership)은 국가 및 하위 국가 수준의 정부가 국감 날전

22) CSIS. (2019). Demand-Driven Approach to Development

전략과 프로그램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할 권한과 역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권한이 아니라, 국민과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기부자와 파트너 국가는 서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려는 대화 의지를 가져야 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와 지역 행위자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수요 기반 접근과 연결될 때, 이는 현장의 필요를 국가 전략에 포함시키고, 맞춤형 지원이 정부의 장기 비전과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둘째, 포용적 파트너십 접근법(Inclusive Partnership Approach)은 정부, 국제기부자, 시민사회, 민간 부문 등 모든 행위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방식이다. 강력한 파트너십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하며, 각 행위자의 다양하고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수요 기반 접근에서 포용적 파트너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욕구와 제안을 반영해 사업 목표와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맞춤형 지원 설계에서는 분쟁 조정 메커니즘과 신뢰 구축 절차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 번째는 현지 행위자 참여(Involving Local Actors)이다. 이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 시민, 지역 NGO, 커뮤니티 기반 조직(Community-Based Organizations, CBO) 등 현지 주체를 지속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현장 실태에 대한 가장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피드백은 지원 사업의 타당성을 높인다. 국가 정부 차원에서 사회 계약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수요 기반 접근에서는 바로 이 현지 주체들의 감각과 요구가 사업 설계의 출발점이 되며, 맞춤형 지원에서는 정례적인 자문 회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반영된다.

네 번째는 원조의 비구속화(Untying Aid)이다. 이는 수원국이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할 때 공여국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다. 원조가 구속될 경우, 수원국은 종종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높은 경로로 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운영 유연성이 크게 제한된다. 이를 해소하면 현지와 역내 시장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장기적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수요 기반 접근에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산업 구조와 연계해 최적의 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지원 설계에서는 조달 규정을 유연화하여 지역 기술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책임성(Transparency & Accountability)은 개발 파트너와 수원국이 예산, 프로그램, 성과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 책임을 지는 구조다. 이는 부패를 방지하고 신뢰를 강화하며, 결과 기반의 사업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MCC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개는 필수적이다. 수요 기반 접근에서는 이를 통해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으며, 맞춤형 지원 설계에서는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안에 주민 피드백과 현지 데이터 공개를 포함시켜야 한다.

결국,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서로 독립된 지침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의된 수요를 반영하고,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순환 구조 속에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뒷받침되면, 원조는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수원국이 스스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내재적 역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기구와 공여국, 수원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상호 신뢰와 장기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단순한 원조 제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개발 협력을 실현해야 한다.

데이터, 모니터링, 평가를 통한 상호책임성 강화

효과적인 현지 주도 개발에서 상호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모니터링, 평가 체계를 전략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제시한 지침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심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OECD DAC는 '결과관리(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MfDR)' 원칙과 '성과기반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 지침을 통해 정책 목표 달성과 책임성을 연결하는 체계적 구조를 제시한다. 이는 명확한 성과 지표 설정, 데이터 품질 관리, 주기적 성과 검토 등을 포함하며, 복잡한 개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결과 도출과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OECD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맞춰 관리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과 투명성 강화를 강조한다.²³⁾

UNDP는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for Development Results」 핸드북에서 기획부터 모니터링,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포용적 접근과 국가 주도성을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취약 집단과 현지 파트너의 참여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현지 이해관계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신뢰 구축과 정책 개선을 촉진한다.²⁴⁾

UNICEF의 MoRES(Monitoring Results for Equity System, 모든 아동을 위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형평성과 포용성을 핵심에 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 집단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평가를 강화한다. MoRES 평가 과정은 현지 상황에 맞춘 적응적 학습과 평가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현장 적용 사례를 통해 지속적 개선과 신뢰 형성 메커니즘을 확립한다.²⁵⁾

세계은행은 「Monitoring & Evaluation: Some Tools, Methods & Approaches」와 「Impact Evaluation in Practice」를 통해 계량적 및 비계량적 평가 방법론과 실증 데이터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효과성을 검증하고, 반복 학습과 증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에 자원을 집중한다.²⁶⁾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설계 및 모니터링 프레임워크(Design & Monitoring Framework, DMF) 지침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의 통합성과측정체계(Integrated Results Management Framework, IRMF)는 사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성과 측정과 책임성 확보를 내재화하는 도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업 실행 전 과정에서 상호책임성을 강조한다.²⁷⁾

23) OECD. (n.d.) OECD DAC Guiding Principles on Manag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ults.

24) UNDP. (2002). Handbook on Monitoring and Evaluating for Results.

25) UNICEF. (2014). Formative Evaluation of UNICEF's Monitoring Results for Equity System (MoRES)

26) World Bank. (2004). Monitoring & Evaluation: Some Tools, Methods & Approaches.

27) ADB. (2020).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Using a Design and Monitoring Framework. ;

또한 글로벌 개발협력효과성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의 모니터링 가이드는 국가별, 프로그램별 상호책임성 지표 운영과 시민사회, 정부, 국제 파트너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 점검 메커니즘을 권장한다. 이는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여 신뢰 기반 협력을 강화한다.²⁸⁾

종합하면, 현지 주도 개발에서 상호책임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및 평가 체계는 단순한 성과 측정을 넘어 현지 이해관계자 전원이 공유하는 신뢰와 공동 책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기구들은 명확한 지표 설정, 데이터 품질 관리, 포용적 참여 평가, 적응적 학습,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현지 권한 강화, 정책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 성과 달성에 필수적인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https://ci.linkedin.com/company/irm-adbg> (2025. 08. 13. 검색)

28)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uidance for 4th Global Partnership Monitoring Round (2023-2026)」. <https://www.effectivecooperation.org/Published-Create%20book%20page> (2025. 08. 13. 검색)

마치며

한국의 개발협력이

나아갈 길에 대한 제언

현지 주도 개발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화두로 부상한 지금, 한국의 개발협력도 단순한 원조 제공자에서 벗어나 현지 주도 개발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흐름과 한국의 정책적 상황을 반영하여 심도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현지 이해관계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OECD DAC 회원국들은 현지 행위자 주도권(Ownership)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협력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 설계, 예산 편성, 성과지표 결정 과정에 실질적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조한다. 이는 사업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 정부도 현지 협의체 정례화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참여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²⁹⁾

두 번째, 재정 집행 방식에서 현지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재정 투명성 제고 노력과 OECD, IMF 등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 공개 및 관리 시스템 도입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신뢰 기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정 투명성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현지 파트너들과의 공동 모니터링 및 책임성 강화 메커니즘과 결합되어야 한다.³⁰⁾

세 번째,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제도와 정책, 역량 강화가 연계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이 사업 종료 후에도 현지의 자립적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OECD와 GPEDC, USAID 등 국제기관들이 강조하는 핵심 원칙이며, 한국도 이를 반영해 사업 운영 체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³¹⁾

네 번째, 모니터링과 평가에서는 OECD/DAC 평가 기준과 글로벌 모범 사례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현지 맥락에 맞는 맞춤형 지표 개발과 참여형 평가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DAC 평가기준을 법적 의무화했으나, 현장 적용에는 역량과 인프라 한계가 있어 지속적 개선이 요구된다.³²⁾ 현지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상호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신뢰 구축과 정책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 교육 등의 비교우위 분야를

29) Kim Yukyum. An Analysis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 Discussions on Locally Led Development (LLD)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J Int Dev Coop 2024;19(2):105-131. <https://doi.org/10.34225/jidc.2024.19.2.105>

30) 한국법제연구원. (2006).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가기준 개편 논의와 시사점.

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가기준 개편 논의와 시사점.

중심으로 현지 혁신 생태계와 연결하는 차별화된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형 현지주도개발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파트너십 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 전략이다. 예를 들자면, 디지털 전환 역량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현지 상황에 맞게 융합하는 사업들이 대표적이며, 기후 및 웰스케어 분야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례들로 한국 개발협력의 혁신성을 보여준다.³³⁾

이와 같은 다각적 전략 전환은 한국이 단순 지원국을 넘어 지역 주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코리아(Partner Korea)'로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지 주도의 실질적 권한 부여와 재정 및 정책적 책임성 강화, 현지 참여 확대, 그리고 혁신 역량을 토대로 한 차별적 협력 모델이 구축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

33) 국무조정실. (2022. 1. 27.) 김부겸 국무총리,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다음에서 검색됨.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038 (2025. 08. 13. 검색)

참고 문헌

해외 문헌

- ADB. (2020).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Using a Design and Monitoring Framework.
- CSIS. (2019). Demand-Driven Approach to Development
- Cornwall, A. (2002). Making spaces, changing places: Situating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Working Paper Series. 170). Brighton: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IDS).
- Diamond, L., (1999), "Multi-Track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In People Building Peace. 35 inspiring stories from around the world, edited by State of the World Forum, 77-86, The Hague, Netherlands: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
- Donais, T., (2009), "Empowerment or Imposition? Dilemmas of Local Ownership in PostConflict Peacebuilding Processes", Peace & Change 34(1), 3-26
- Escobar, A. (1995).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teos, O, (2011), "Local Ownership and Liberal Peacebuilding: From Rhetoric to Practice? Sierra Leone as a Case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Conference on African Studies, Uppsala, Sweden, June 15-18.
- Ndlovu-Gatsheni, S. (2020). Decolonization, development and knowledge in Africa: Turning over a new leaf. London: Routledge.
- OECD (2024), Pathways Towards Effective Locally Led Development Co-operation: Learning by Exampl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1079bba-en>.

- OECD.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Ownership, Harmonisation, Alignment, Results and Mutual Accountability. OECD Publishing.
- OECD. (2021). Partnering for Local Ownership Programme-based Approaches at the District Level.
- OECD. (2023). Empowering Local Actors by Prioritizing Local Capacity and Networks: Poland's solidarity Fund
- OECD. (n.d.) OECD DAC Guiding Principles on Manag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ults.
- Peck, C., (1999), "A More Strategic Partnership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Conflict", In Searching for Peace in Africa. An overview of conflict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ivities, edited by Monique Mekenkamp, Paul van Tongeren and Hans van de Veen, 39-45. Dublin, Ireland: International Books.
- The Share Trust & Warande Advisory Centre. (2022). Passing the buck: The economics of localising international assistance.
- UNDP (2025). Area-Based Development Practice Note.
- UNDP. (2002). Handbook on Monitoring and Evaluating for Results.
- UNDP. (2015)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 UNICEF. (2014). Formative Evaluation of UNICEF's Monitoring Results for Equity System (MoRES)
- Van Brabant, K. (2010), "Peacebuilding How? Broad Local Ownership." Geneva, Switzerland: International Peace Alliance
- Van Tongeren, P., (1998), "Exploring the Local Capacity for Peace - The Role of NGOs." I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Violent Conflicts: An International Directory, 21-26, Utrecht, Netherlands :

European Platform for Conflict Prevention and Transformation

Van Tongeren, P., (1999), "Some Reflections on Peace-Building." In People Building Peace People Building Peace, 124-133, The Hague, Netherlands: European Centre for Conflict Prevention.

WONG. P. (n.d.). 'Local Ownership' in Peacebuilding - a Premature Rhetoric?

World Bank. (2004). Monitoring & Evaluation: Some Tools, Methods & Approaches.

World Bank. (2021). Collaborative Management Partnership Toolkit.

국내 문헌

김유겸. An Analysis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 Discussions on Locally Led Development (LLD)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J Int Dev Coop 2024;19(2):105-131. <https://doi.org/10.34225/jidc.2024.19.2.1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가기준 개편 논의와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2006).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국내 인터넷 자료

국무조정실. (2022. 1. 27.) 김부겸 국무총리,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 다음에서 검색됨.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038 (2025. 08. 13. 검색)

해외 인터넷 자료

ADB. (2020).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Using a Design and Monitoring Framework. ; <https://ci.linkedin.com/company/irm-adbg> (2025. 08. 13. 검색)

Alan Hudson, 「Embracing Systems Practice: Reflections on USAID's Local Systems Position Paper」. <https://www.linkedin.com/pulse/embracing-systems-practice-reflections-usaids-local-position-hudson-dc5ae> (2025. 08. 13. 검색)

Brookings. 「Development interdependence: Locally driven, globally informed」. <https://www.brookings.edu/articles/development-interdependence-locally-driven-globally-informed/> (2025 07. 04. 검색)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uidance for 4th Global Partnership Monitoring Round (2023-2026)」. <https://www.effectivecooperation.org/Published-Create%20book%20page> (2025. 08. 13. 검색)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https://www.oecd.org/en/topics/development-co-operation> (2025. 08. 04, 검색)